

062

Lifestyle

아름다움을 쫓는 사람

사진작가 구본창

사진작가 구본창이 물건 모으는 데 취미가 있다는 사실은 꽤나 알려진 이야기다. 백자 시리즈를 비롯한 그의 정물 작업을 보노라면 표정을 지닌 듯한 물건들이 등장한다. 사물을 찍었지만 초상 사진처럼 보이기도 하고, 사람들은 그 속에서 몽클함이나 그리움을 읽어내기도 한다. 2011년에는 국제갤러리에서 수집한 물건만을 따로 모아 전시를 열었을 정도이니 그의 내밀한 공간에서 물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생겼을 때 기대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마주 앉은 동안 그가 가장 많이 한 이야기는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였다. 세상 그 무엇이든 고유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걸 믿고 그것을 이미지로 담아내는 그는, 사진가이기 이전에 아름다움을 쫓는 사람이다.

글 이수빈 | 사진 김진희 516 스튜디오

하찮지 않은 아름다움

경기도 분당의 어느 골목길, 사진작가 구본창이 2000년부터 지내온 이곳에는 두 채의 건물이 나란히 서 있다. 주거 공간으로 쓰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부 작업을 위한 공간으로 쓰이며 작품과 각종 자료, 무엇보다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방대한 물건으로 들어차 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쓰시던 깨진 접시, 아버지가 출장길에 사다주셨고 자신의 첫 수집품이라 명명한 '1964년 도쿄 올림픽 카탈로그' 같은 어린 시절 물건부터, 작업에 썼던 비누 조각, 작업을 위해 모은 액자, 여행지에서 안 판다는 것을 빼앗다시피 값을 치르고 사 온 물건, 하다못해 공사에서 주워 온 자재까지 그 품목과 연대의 스펙트럼이 참으로 넓다. 하지만 이들을 데려온 이유는 하나같이 '아름다워서' 다. "온갖 물질을 다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는 사물이 없어요. 물건, 그중에서도 공예품이 좋은 이유는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재주를 부려 만들어놓은 데 있어요. 그 사람이 가진 힘이 물건을 통해 전달되고 내게 새로운 자극을 주고 호기심을 주지요."

그가 호기심의 눈으로 본 물건들은 저마다 고유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발을 한 걸음 떼기도 전에 그 '아름다운' 존재들이 연이어 나오기 때문에 작업실을 한 바퀴 둘러보는 데에도 시간이 꽤 걸린다. "이 앤티크 소품은 대만에서 구해 온 것인데 처음에 그냥 왔다가 다시 생각나서 2주 만에 다시 가서 사 올 수밖에 없었어요." "동네 공장장 인부가 공사할 때 쓰던 납땀 부속품인데 너무 예뻐서 두고 가라고 했어요." "모로코에서 햇빛 가리개로 쓰던 천막 천인데 언젠가 사진 배경으로 쓰면 좋을 것 같아서 뜯어왔죠." 구본창은 때로는 진열장에 놓인 순서대로, 때로는 보물찾기 하듯 틈새에 놓인 물건을 꺼내 들어 보이며, 그에 얽힌 이야기를 곁들인다. 이 모든 것이 곧 그의 생의 순간이자 기억, 장면의 채집인 것이다. 용도와 데려온 장소, 만든 사람, 소재는 다 다르지만 구본창이 특별히 마음 쓰는 자리는 짐작이 된다. 수집품은 대부분 낡았거나 무언가 담겼다가 비어버린 존재, 제 쓰임새를 다해서 자칫 '쓸모없음'으로 여겨지는 것들이다.

어린 시절, 구본창은 자신이 그런 쪽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여겼다. 말수도 적고 내향적이던 그는 토래와 어울리기보다 말하지 못하는 것들을 벗 삼아 놀며 자신을 작은 물건에

구본창이 모은 철제 소품들. 철사로 만든 모자걸이부터 공사에서 주워온 각종 부속품, 여행길에 사 온 촛대와 차통, 책을 담는 램프까지 그 출처와 용도가 다양하다. 모두 세월의 흔적으로 녹슬고 낡았지만 바로 거기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

063





대입해 생각했고, 그 아름다움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게 됐다. “그 시절에는 마음껏 관심사를 펼치지 못했어요. 내 눈에는 예뻐 보였지만 버릴 걸 주워 왔다고 아단맞기 일쑤였죠. 그러다 독일 유학 시절에서야 하찮은 것을 눈여겨보는 태도가 내 장점이란 걸 알게 됐고, 도리어 그러한 성향이 존중받고 칭찬받았죠. 그때부터 수집에 불이 붙은 거죠. 평생 하찮은 아름다움에 눈길을 주게 됐어요.”

사진 찍는 마음

물건들은 작업의 소재가 되기도 한다. ‘백자’ 시리즈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영국 도예가 루시 리(Lucie Rie)가 달항아리와 함께 찍은 사진을 한 장 본 것이 시작이었다. 이 저명한 서양 도예가가 어찌나 우리의 달항아리와 만나게 됐을까 하는 궁금증이 백자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고, 1989년에 이 사진을 본 이후로 십수년간 백자를 애정 어린 시선으로 눈여겨보다가 2004년에야 본격적으로 작업하고 발표했다. 이 작업을 위해 박물관과 소장가의 집을 무시로 드나들었다.

한국의 탈을 소재로 한 ‘탈’ 시리즈, 쓸수록 닳아 작아지는 비누 조각을 통해 일상의 아름다움을 담아낸 ‘비누’ 시리즈도 있다. 물론 꼭 사진을 찍기 위해 물건을 모으는 것도 아니고, 작업의 소재가 수집물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요, 그의 사진은 사물을 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물이나 자연 등으로도 확장된다. 특히나 임종을 앞둔 아버지를 기록한 ‘숨’은 죽음과 삶에 대한 목직한 울림을 준다. 하지만 무엇을 찍든 그것이 무생물이나 생물이거나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존재에 대한 애정으로 작업을 이어가는 그이기에, 곁에 둔 존재들이나 사물에서 작업의 실마리를 얻는 일이 잦은 것이 사실이다.

그는 사진이란 수집의 또 다른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마음에 든 물건을 사듯 눈에 든 무엇을 ‘캐치’한다. 풍경도, 지나가는 사람도, 그리고 이미 자신의 수중에 들어온 물건도 사



1 여행지에서 데려온 철제 공예품들

2 구분창의 작품들이 놓인 공간.

‘백자’ ‘비누’ ‘황금’ 시리즈 등 다양한 작업을 볼 수 있다.

3 사진작가 구분창.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물건을 수집해온 그는 피사체 고유의 아름다움을 읽어내 사진으로 담아낸다.

066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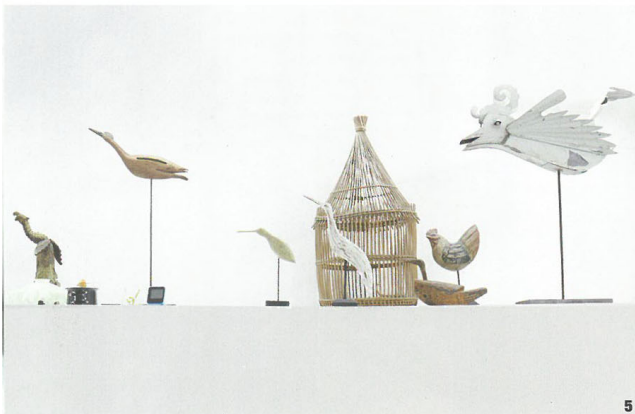
- 4 사진작가 구본청의 작업실 한편. 다양한 사진집과 자료가 꽂혀 있는 책장 곳곳에도 세계 각지에서 데려온 물건들이 놓여 있다.
 5 작업실 벽면을 장식한 다양한 소재와 형태의 새 조각품. 특히 제일 오른쪽에 놓인 한옥의 물받이 장식은 기능적 물건임에도 뛰어난 미감이 녹아 있어 그가 좋아하는 수집품이다.
 6 '비누' 시리즈를 위해 모은 비누들
 7 무엇이 깃들이고 비워진 자리에 마음이 끌린다는 구본청은 빈 상자를 모으기도 한다. 프랑스 군인들의 제복 견장을 담았던 종이함은 버룩시장에서 사 왔다.

진을 찍는 순간 '컬렉션'이 된다. "일종의 빛의 컬렉션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제가 사물을 수집하듯 어찌 보면 사진이란 매체를 택함으로써 빛으로 세상을 수집하는 것인 지도요." 그는 사진을 찍음으로써 자신의 인생이 새로이 태어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한다. 그렇기에 지금도 자신의 시선으로 세상을 담기에 여념이 없다.

끊임이 없는 사람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을 꼽아달라는 말에 '백자' 작업의 확장인 '청화백자' 시리즈, 황금으로 된 유물을 찍는 '황금' 시리즈, 미발표작 '탈복자' 작업, 역시 미발표작이자 전통 종이함의 속지 문양을 사진으로 찍어 복원하는 작업 등 대어섯 개가 쏟아져 나온다. "하나의 작업이 나오기까지 꽤 시간이 걸리는 편이에요. 완벽주의자는 아니지만 나에 대한 스스로의 기대치, 나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감을 알기에 그것을 저버리지 않는 게 작가로서 의무라고 생각해요. 대신 한번 시작한 작업은 쉬이 놓지 않고 끈질기게 손에 쥐고 갑니다. 관심이 다양하기에 그 모든 것을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진행합니다."

그래서 작업할 때는 여러 방에 각기 다른 작업을 풀어놓는다. 어느 방에서는 클래식, 다른 방에서는 체스, 또 다른 방에서는 조용필의 열창을 들으며 각각 작업에 맞는 분위기



5

를 낼 정도다. “일전에 프랑스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인터뷰를 보다가 깊이 공감한 적이 있는데, 두 편의 소설을 함께 쓴다면 각각 다른 컴퓨터로 작업한다는 이야기였어요. 동시에 여러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신적으로 잘 분리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신체적으로도 그런 환경을 맞춰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작업하는 사람이기에 반가웠지요.”

그런 면에서 여행은 정신적·신체적으로 신선한 자극이 된다. 얼마 전에도 개인전 때문에 스페인 마드리드에 다녀온 그는 여행할 때면 자신이 익명의 누군가가 되는 느낌을 좋아한다. 그 누구든 여행지에서는 히스토리가 지워진 낯선 사람으로 존재하고 또 현지의 모든 것을 히스토리를 지운 낯선 것으로 새롭게 인식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새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자극을 받고 새로이 감동하게 되는 것이다. 이번 여행길에서는 다시 한번 프라도 미술관에 들렀다. 15~16세기의 세밀하게 묘사된 그림들을 보면서 그 시절의 화가들이 이미 사진가인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이루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세심한 관찰력과 정교한 표현력을 보며, 재차 자극을 받고 자신을 재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사진을 한 지 40여 년이 지났지만 자신이 변치 않아 좋은 점은 다행히도 아직도 작은 것에 떨리는 사람이란 사실이 다. 미술관에서 박물관에서 베틀시장에서, 길 가다 만난 모퉁이의 돌맹이에도 여전히 감탄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한다. 간혹 사진계 행사에 참여하거나 강의 때 학생들을 만나면, 자신이 어느덧 후배들로부터 기대를 받는 자리에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늘 하찮은 존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던 그가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제법 영향력을 발휘하는 위치에 이른 것이다. “어떤 영향을 주고 싶으나”는 질문에 그는 “끊임없이 황홀해하고 호기심을 놓지 않으며 계속 작업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한다”고 말한다. 그것은 단순히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 방식에 가깝다. 지금도 하루에 열두 시간 이상 작업에 매달리는 사람. 머릿속에 수많은 폴더를 열어두고 어떤 것을 연결 지어 보여줄까 궁리하는 사람, 끊임없이 좋아하는 게 있는 사람. 그의 모습은 구분창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로 다가온다. 지치지 않고 아름다움을 쫓는 사람은 결국 또 다른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기 마련이다. ㉸

